



2024년 웹진 <연극in> 희곡 공개모집 안내

■ 들어가며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희곡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아직) 없는 희곡입니다. 그 희곡이 하나의 물질이 되는 과정에는 다종다양한 존재가 다층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온전히 하나의 희곡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글썬, 어떤 극작가는 저번 주에 쉬프트가 고장 나서 희곡쓰기를 미뤘습니다. 신이 세상을 단번에 구원하는 경이로운 장면을 쓸 차례였는데도요. 변명일수도 있겠죠. 그치만 글썬, 쉬프트 없이 희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 문장까지, 쉬프트가 몇 번 쓰였는지 아시나요? 쟤까 찌끔 췌어보니까 열 일꼬뽀 뻘이네요> (쉬프트를 떼다.) 하나의 커다란 세계는 수많은 작은 존재들의 얽힘과 협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곡도 그렇습니다. 몸을 가진 극작가는 몸으로 쓰고, 몸은 그 수많은 존재들과 닿습니다. 당연하고도 작은, 극-창-작과는 무관해보이는 한 존재가 없는 세계에서 쓰여진 희곡들을 요청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재의 틈새에서 찾아오는 낯선 다른 손들을 받아들이며 도래할 새로운 희곡을 기다립니다.

■ 제안에 대하여

희곡 쓰기를 하나의 몸짓으로 생각합니다. 희곡 쓰기를 구성하는 몸짓들 중 하나를 소거하여 요청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써주세요. 주제와 소재는 무관합니다.

- ① 엔터 없이 쓰기
- ② 쉬프트 없이 쓰기
- ③ 스페이스바 없이 쓰기
- ④ 인물 없이 쓰기
- ⑤ 대사 없이 쓰기
- ⑥ 지문 없이 쓰기
- + 이외에 더 낯선 -없이 쓰기 제안 가능

작가님께서서는 희곡 읽기를 하나의 몸짓으로 생각해주시고 이 희곡을 읽는 몸짓을 하나 제안해주세요.(서서 읽기, 누워서 읽기, 산울림을 들으면서 읽기, 신발 벗고 읽기, 먹으면서 읽기, 산에서 읽기 등등)

■ 공개모집 내용

분야	제출 파일	제출 방법
희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이' 쓴 희곡 1편 •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분량(PDF 파일 권장) • 희곡 파일 익명 제출 ※ 개인정보 등은 지원신청서에 별도 기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원신청서(지정양식) 1부	이메일 접수 webzine@sfac.or.kr ※ 다수 편 투고 가능

※ 유의사항

- ★ 보내주신 희곡은 선정 과정에서 사심위원과 오프라인 현장감상에만 공유되며, 작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 타 공모에 당선되었거나 이미 출판 및 공연된 작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 등은 접수할 수 없으며, 추후 밝혀졌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 지난 공개모집에서는 총 80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사심 토론회를 통해 22작품이 현장감상 대상작으로 선정, 2차 현장감상(71명 참여, 65명 투표)을 통해 2작품이 우선선정작으로 선정, 3차 사심위원 최종 합의를 통해 10작품이 선정되어 총 12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 ★ 공모로 선정된 희곡은 웹진 호당 한 편씩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14작품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 공개모집 일정

구분	일정	세부 내용
접수	4. 1.(월)~4. 30.(화)	· 웹진 <연극in> 메일을 통해 공모 접수(webzine@sfac.or.kr)
서류 확인	5. 1.(수)~5. 2.(목)	· 필수 제출 서류 행정 확인(익명, 중복 등)
1차	5. 3.(금)~5. 26.(일)	· [사심위원] 희곡 정독 및 작품별 '사심의 글' 작성
현장 감상	5. 8.(화)~5. 26.(일)	· [현장감상] 접수된 전 작품 서울연극센터 라운지(1층)에 감상 장 마련
2차	5. 27.(월)~5.31.(금)	· [사심위원] 최종 작품 선정 토론 협의
최종 발표	6. 3.(월) 예정	· 선정작 및 게재순서 발표 ※ 개별 연락 후 웹진 순차 게재

※ 상기 일정은 접수 인원, 발행 일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곡 선정 시

- 최종 선정작은 웹진 <연극in> '희곡' 코너에 순차적으로 매 호 게재 예정
- 원고 게재 후 2주 이내, 원고료 25만원 지급(세금 포함)

■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방식

- 사심위원 개별 의견서 작성(1차) → 사심위원 최종 협의(2차)

※ 사심위원 제도

희곡운영단은 사심위원 제도를 통해 작가 여러분과 만납니다. 사심위원제도는 2021년부터 희곡 공개모집을 위해 고안된 심의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 또한 사심 가득 담아 ‘책임감’을 가지고서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심(邪心 : 간사한, 치우친 마음), 사심(私心 : 자기 마음), 사심(四審 : 4명의 위원) 사심위원은 희곡운영단 3인, 운영단의 추천인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심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사심위원은 모든 투고 작품을 충분히 언급합니다.

둘째, 사심위원은 당·낙선한 작가들의 질문에 끝까지 응답합니다.

셋째, 사심위원은 모든 작품을 두 번 이상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넷째, 사심위원은 자신의 사심을 공정이나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심위원 1	극장이 운동을 상징으로 변환하는 순간들을 동의/거부해오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글과 말이 뒤섞여 탁하고 성가시게 장면이 유예되는 희곡에 관심 있습니다.
사심위원 2	일상적 사건과 비일상적 환상이 뒤섞인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간의 순서와 공간의 경계를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연결이 만들어내는 오해와 이해를 주로 씁니다.
사심위원 3	관념을 물질로, 물질을 관념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지는 말들, 패턴 없이 직조되는 형식들, 재현을 위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심위원 4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하나 남은 것들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추상적인 말들이 세계를 일으키는 방식, 가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이끌어오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 동료·독자의 현장감상

이번 희곡 공개모집은 접수된 작품이 가능한 많은 독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현장감상 기간에 한해 전 작품을 오프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장감상 기간에 서울연극센터를 찾은 동료·독자는 라운지(1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전시된 희곡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자유롭게 남깁니다. 이번 현장감상에서는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참여자들의 감상과 의견은 작가들에게 별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webzine@sfac.or.kr 02-743-9337